

성산 배씨 문중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 袍에 나타난 봉제구성법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상 은<sup>+</sup> · 이 동 아<sup>\*</sup>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sup>\*</sup>

**A Study on Excavated Costume of the Bae's Clan of Seong-san**  
- Focused on Analysis on Features of Sewing Observed in  
**Po(Coat in Korea in the Past) -**

**Sang-Eun Lee<sup>+</sup> · Dong-A Lee<sup>\*</sup>**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sup>+</sup>

Lecture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sup>\*</sup>

(2009. 1. 12. 접수; 2009. 2. 15. 수정; 2009. 2. 19. 채택)

**Abstract**

Clothing was excavated when the Bae's clan of Seong-san, Yeong-dong, Chung-buk in Sep. 2, 2004. The tombs that the clothing could be restored were the tombs of Bae Cheon-jo(10th generation) and the tomb of Mrs. Nam of Go-seong, the wife of Bae Sang-gyeong(11th generation).

For identifying the features and methods of sewing used for the clothing of man and woman around Po(coat in Korea in the past) in the 16th to 17th century, this study investigated 12 items from Bae Cheon-jo's tomb(Sibok, Dupo(robe), Jungchimak(outer coat with large sleeves) and Gwa-du and 5 items(Jangok(lady's cloak) and Jungchimak) from Mrs. Nam's tomb of Go-seong. For sewing, broad-stitching, hemming and even-back-stitching were used the most in that order. Furthermore, various kinds of sophisticated stitching including old flat felled seam, decorative saddle stitching and buttonhole stitch, clothing made roughly as a shroud and fabric attached on the clothing were also observed.

We may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clothing in Korea from mid 16th century to mid 17th century through the clothing of fa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 a family. As a resul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sewing in a family and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

**Key Words:** Features of sewing construction(봉제구성의 특징),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Po of 16th century to the 17th century(16·17세기의 포)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Sang-Eun Lee

Tel. +82-10-9071-3771, Fax. +82-2-450-3304

E-mail : sangeunlee@kku.ac.kr

## I. 서론

2004년 9월 2일 충북 영동 성산 배씨(星山 裴氏)문중에서 이장을 하던 중 의복이 출토되었는데, 일부 분묘에서는 수습이 어려운 것들도 있어 복식을 수습한 묘는 10대조 배천조(裴天祚, 1532~?)와 11대조 배상경(裴尙慶)의 배위(配位) 고성남씨(固城南氏)묘에서 출토된 것만을 수습하여 보존처리를 하였다.

성산 배씨 문중의 시아버지 배천조에서 수습된 유물은 피장자가 가장 안쪽에 착용하고 있던 적삼(赤衫)과 속바지(袴), 직령포(直領袍) 및 버선(襪)을 제외한 수의(壽衣)와 보공(補空) 및 염습구(殮襲具)를 포함하여 총 27건 44점의 복식이 수습되었으며, 그의 며느리인 배상경 배위 고성 남씨는 의복 및 염습구를 포함하여 29건 45점이 수습되었다.

본 연구는 배천조 복식의 포(袍)류 총 12점(시복(時服), 직령포(直領袍), 도포(道袍), 중치막(中赤莫), 과두(裹肚))과 고성 남씨의 포(袍)류 총 5점(장옷(長衣), 중치막(中赤莫))등을 중심으로 16·17세기 봉제구성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배씨 문중 출토복식은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우리 복식의 변화상을 한 집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복식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더욱이 외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른의 복식에 남다른 책임과 정성을 기울인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봉제구성의 방법이 시어머니의 손길에서 며느리의 솜씨로 넘어가는 과정의 변화가 이들 복식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당시의 16·17세기의 한 집안의 봉제구성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묘주의 인적사항

성산 배씨 23세손(世孫) 12대조(代祖)배천조(裴天祚, 1532~?)는 고려 태조 태사 개국일등공신인 무열공 휘 현경의 23세손이며, 고려 삼중벽상공신(三重壁上功臣) 휘 위준(位俊)의 16세손

이며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휘 록(祿)의 차남이다. 풍채가 좋고 강직한 심성을 갖추었다. 임진왜란 때 정기룡(鄭起龍)장군과 추풍령전투에 참전하였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지냈고 배위(配位) 정부인 영산(永山) 김씨는 응원(應元)의 딸이다. 외아들 상경(尙慶)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묘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룡리 이현에 있다.

배상경의 배위 정부인 고성(固城) 남씨(南氏)는 여필(汝弼)의 딸이다. 배상경의 자는 문보(文甫), 고려삼중벽상공신(高麗三重壁上功臣) 휘 위준(位俊)의 17세손이며, 가선대부 휘 천조 외아들이다. 1575년(선조8)에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고성 남씨는 그의 배위로 슬하에 장남 시정(時迪), 차남 찰방(察訪) 시익(時益) 등 2남을 두었다.<sup>1)</sup> 묘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향리 1구 6번지에 있다.

## III. 봉제구성법과 특징

### 1) 배천조(裴天祚) 묘 출토복식<sup>2)</sup>

피장자가 가장 안쪽에 착용하고 있던 적삼과 속바지, 직령포 및 버선을 제외한 수의와 보공 및 염습구를 포함하여 총 27건 44점의 복식유물이 수습된 것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포(袍)류는 총 12점으로 시복(時服) 1점, 직령포(直領袍) 1점, 도포(道袍) 3점, 중치막(中赤莫) 6점, 과두(裹肚) 1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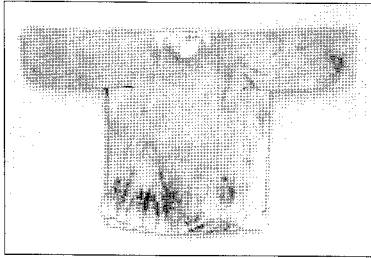
먼저 시복(時服)은 출토 당시 선명한 분홍빛으로 전형적인 시복(時服)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도포(道袍)는 형태와 구성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는데, 직선배래에서 곡선형 배래로 진동과 품이 좁아지면서 날렵한 형태로 변화하며, 다양한 종류의 무 고정과 구성법을 보여 주고 있다. 중치막(中赤莫)은 도포(道袍)의 변화와 같이 진동과 품이 작아지면서 중치막(中赤莫)의 전체적인 형태가 날렵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 남자 일상복의 변화를 살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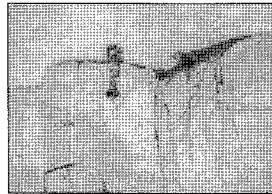
수 있으며, 온박음질, 흠질, 옛쌈술), 감침질, 시침질, 상침등 바느질이 정교하고 만들새가 좋아 평상시 착용 의복을 수의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服)으로 홀이며, 깃은 정 사선재단이 아니며, 앞부분에 이은 깃 부분은 일반적인 깃과 같게 재단해서 달았다. 안길의 셔는 식서로 그대로 이용하였다. 직선배래, 직사각형의 무가 겨드랑이 부분에서 고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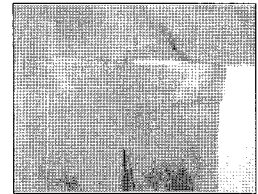
(1) 시복(時服): 연분홍 무명으로 만든 시복(時



<그림 1> 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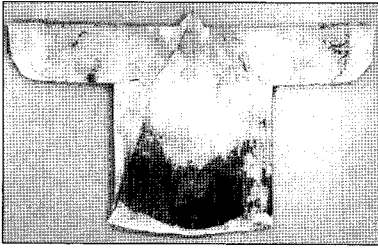
<그림 2> 매듭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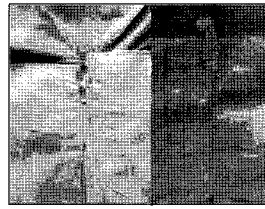
<그림 3> 무 부분

<표 1> 시복(時服)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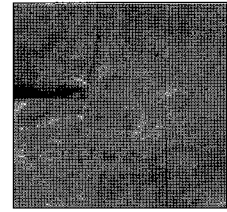
시 복				
구성 및 소재	홀, 무명			
바느질법 구성	온박음질, 감침질, 옛쌈술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온박음질	너비는 4.5~5cm, 1cm안에 5개	
2	셔	겉 / 안	옛쌈술	1cm안에 5개 / 단 없이 식서 그대로
3	소매	배래	옛쌈술	1cm안에 5개
		수구	흠질, 어긋감침 (안단)	
4	등술	온박음질	1cm안에 5개 (사접과 시접)	
5	옷감 연결부분	앞, 뒷길	온박음질	1cm안에 5~6개
		소매	온박음질	
6	도련	감침질, 제물단		
7	열단	감침질, 제물단		
8	겨드랑이바대	겉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타원형의 형태로 안에다 덧담 (안)
9	무	연결 / 상단	온박음질 / 말아감침	
10	트임	감침질 (트임 없이 막음)		무와 무의 안쪽 트임부분을 연결
11	고름	흔적		
12	등바대	감침질		
13	매듭단추	온박음질로 누름		



<그림 4> 직령



<그림 5>  
무 고정 매듭단추와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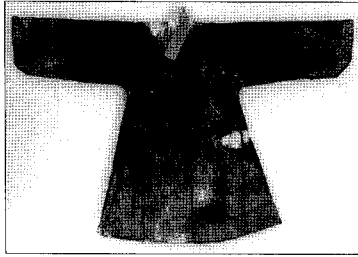
<그림 6>  
1/4원형 겨드랑이바대 (겉)

(2) 직령(直領): 무명으로 만든 홀직령(直領)으로 칼깃이며, 옆선에는 앞, 뒤쪽의 무가 달렸고, 이를 반으로 접어 윗부분에서 일부 연결(6.5cm)을 하여 매듭단추고리를 세워 달았는데, 이는 겨드랑이 아래에 달아 무에 달린 단추와 연결할 수 있게 하였고, 무의 윗부분에서 8.5cm정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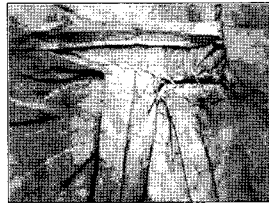
접과 같이 접어 넣어 무의 윗부분이 처지지 않게 하였다. 옷감 폭이 35cm정도이며, 각 폭을 이을 때 식서를 최대한 살려 온박음질로 연결하였으며, 뒷길 중심선을 이을 때 옛쌈술로 처리하였다.

<표 2> 직령(直領)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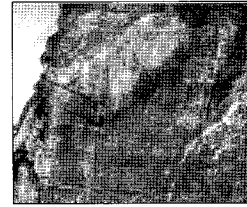
직령				
구성 및 소재		홀, 무명		
바느질법 구성		온박음질, 감침질, 옛쌈		
	명칭	바느질법		비고
1	깃 (칼깃)	홈질		완성선에 시침 흔적
2	셔	겉 / 안	옛쌈술	1cm안에 5개 / 단 없이 식서 그대로
3	소매	배래	옛쌈술	1cm안에 5개
		수구	홈질, 감침질 (안단)	
4	등술	옛쌈술		
5	옷감 연결부분	앞, 뒷길	온박음질	1cm안에 5~6개
		소매	온박음질	1cm안에 5~6개
6	도련	감침질, 제물단		
7	옆단	홈질, 감침질, 덧단(제물)		2.5cm의 덧단을 대고 감침
8	겨드랑이 바대	고운 온박음질		1cm안에 8개, 1/4 원모양
9	무	연결/상단	온박음질 / 홈질	옆단 (제물단으로 감침질)
10	트임	무와 무를 12cm가량만 감침질		무와 무의 연결부분외에는 트임
11	고름	겉셔과 깃 사이	흔적	2cm가량 떼어낸 흔적
		왼쪽겨드랑이아래	온박음질, 감침질	폭1.2cm, 길이 30cm 가량
12	등바대	감침질		
13	매듭단추	온박음질로 누름 (무처짐 방지)		안쪽에 무와 겨드랑이 부분에 있음
14	동정	달려 있지 않음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없음



<그림 7> 도포



<그림 8> 안고름과 무주름



<그림 9> 연결고리 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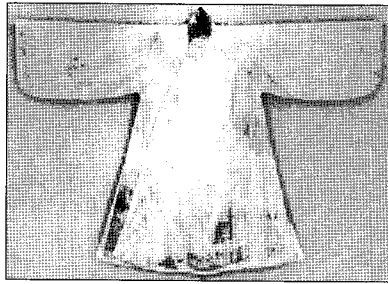
(3) 도포(道袍): 겹은 명주, 안은 무명, 명주, 교직으로 하고 안에는 한지를 넣었다. 칼깃으로 안깃의 깃머리는 안섷에서 절반정도 나와 있게 만들었다.

삼각무 바로 아래에 뒤돌아간 무와 전삼 자락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연결고리를 달고 연결고리 밑에 바대를 달아 힘을 받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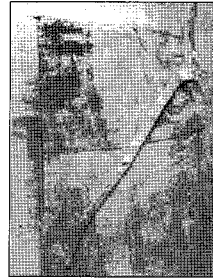
다른 옷과 달리 주름 잡은 무를 홉질 로 고정 하여, 12cm 너비로 해서 뒷길 안감에 다시 고정 하였는데, 이는 마치 액주음포와 같이 거드랑이 아래쪽 주름부분이 옆선 안으로 들어가 보기에 는 별다른 여유분이 없지만 착장 후 여유분이 매우 많은 옷으로 활동성이 큰 의복이라 하겠다.

<표 3> 도포(道袍)의 봉제구성법

도 포 (수의)				
구성 및 소재	겹, 겹은 명주, 안은 무명, 명주, 교직으로 하고 안에는 한지를 넣음			
바느질법 구성	홉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겹 / 안	홉질 / 감침질		완성선에 시침 흔적
2 섷	겹 / 안	홉질		겹,안섷의 안감부분: 명주
3 소매 (거의 직배래)	겹감	배래	홉질, 온박음질	등글리는 부분 5cm가량 온박음질
	안감		홉질(굵은실사용)	1cm안에 3개
	겹 / 안	수구	감침질 / 감침질	수구부터 안쪽으로 10cm부분은 명주
4 등술	겹 / 안	홉질		겹, 안감: 홉질로 연결
5 옷감 연결부분	겹 / 안	앞, 뒷길	홉질	
		소매	홉질	
6 도련	홉질			겹, 안감을 마주보게 홉질
7 옆단	홉질			겹, 안감을 마주보게 홉질
8 삼각무	겹 / 안	온박음질		
9 연결고리 바대	겹감	5땀, 4땀, 2땀상침, 온박음질		상단은 4땀, 하단은 5땀 옆은 2땀
10 무	겹 / 안	홉질		다른 옷과 달리 주름 잡은 무를 홉질
11 연결고리	온박음질			전삼자락이 벌어지지 않게 함
12 고름	겹감	온박음질		거의 흔적만 남음
	안감	온박음질, 끝에서 감침질		너비 2.3cm, 길이 30cm정도만 남음
13 상침	도련	3땀 상침, 0.7cm안에 3땀		3.5cm들어와 6cm정도 간격
	옆단	3땀 상침, 0.7cm안에 3땀		3cm들어와 6cm정도 간격
14 동칭	시침질 (시침간격 2~3cm, 크기 0.1cm)			너비7.5cm, 길이74cm



<그림 10>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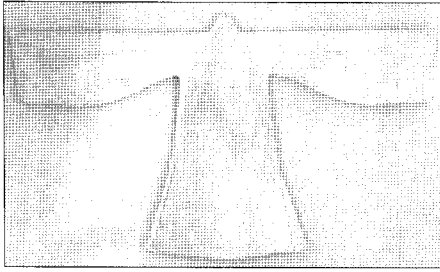
<그림 11> 뒷길에 고정된 무와 안고름

(4) 도포(道袍): 안팎을 무명으로 한 도포(道袍)로 칼깃이며, 앞길의 무가 뒤쪽으로 넘어와 뒷길의 안쪽에 고정이 된 형태이다. 깃머리 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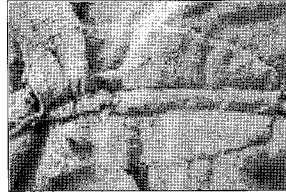
부분을 온박음질로 마무리하였다. 트임고리나, 매듭단추 없이 트임 시작부분에 감침질을 여러 번 하여 힘을 받게 하였다.

<표 4> 도포(道袍)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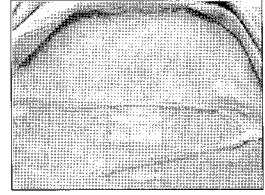
도 포 (수의)					
구성 및 소재		겉,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 안	홈질, 온박음질 / 감침질		안깃머리부분 6cm가량 온박음질로 누름
2	섶	겉 / 안	홈질		겉, 안감: 홈질
3	소매	겉 / 안	배래	홈질	굵은 실을 사용
		겉 / 안	수구	홈질	겉, 안감을 홈질로 이음
4	등술	겉 / 안	홈질		겉, 안감: 홈질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홈질	겉, 안감: 홈질로 연결
			소매	홈질	
6	도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7	옆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		
9	무	겉 / 안	홈질		뒤돌린 무 상단을 굵은실로 크게 감침질하여 고정
10	트임	감침질		트인 부분에 힘을 받히게 함	
11	고름	겉감	온박음질, 감침질 왼쪽, 오른쪽 너비 2.2cm		왼쪽 고름 3cm남아 있고 오른쪽 고름 45cm으로 온전하게 남음
		안감	온박음질, 감침질 왼쪽에만 너비 1cm		왼쪽길이 30cm의 고름이 남고, 오른쪽 안고름은 실밥 흔적만 있음
12	상침	도련	2땀 상침, 0.5cm안에 2땀		4cm 들어와 6cm정도 간격
		옆단	2땀 상침, 0.5cm안에 2땀		3.5cm 들어와 6cm정도 간격
13	동정	시침질 (시침간격 2.5cm, 크기 0.1cm)		너비 8.5cm, 길이 62.5cm	



<그림 12> 도포



<그림 13> 겨드랑이 바대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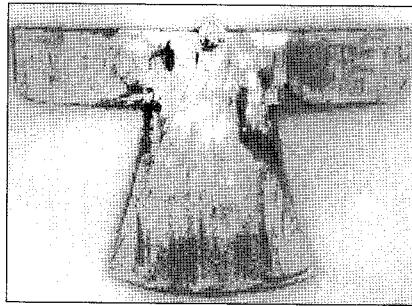
<그림 14> 등바대에 연결된 무

(5) 도포(道袍): 무명으로 만든 홑 도포(道袍)로, 칼깃이다. 품이 대체로 좁고, 소매와 진동도 대체로 좁다. 어깨선에서 바대를 시쳐 고정하였으며, 등바대 밑단은 홑질로 하여 뒤돌아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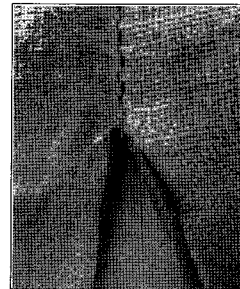
와 연결하였다. 밑단은 제물단으로 시침질하여 고정하고, 옆선은 덧단을 하였다. 각 폭 연결 시 식서를 최대한 이용하였고, 식서가 아닌 경우에는 온박음질로 연결하였다.

<표 5> 도포(道袍)의 봉제구성법

도 포 (보공)				
구성 및 소재		홑,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홑질, 온박음질, 감침질, 옛쌈술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 안	홑질, 온박음질 / 감침질	안깃머리부분 6cm가량 온박음질로 누름, 1cm에 5개
2	섶	겉 / 안	옛쌈술	
3	소매	배래	옛쌈술	둥글어지는 부분만 온박음질
		수구	덧단, 감침질	
4	등술	온박음질		
5	옷감 연결부분	앞, 뒷길	온박음질	식서와 식서를 최대한 이용
		소매		
6	도련	감침질, 제물단		
7	옆단	온박음질, 감침질, 덧단(제물)		4cm정도 덧단을 댄 안섶 쪽 옆단은 접혀만 있음(식서)
8	겨드랑이 바대	안쪽에서 감침질로 덧땀		
9	무	상단/옆선	말아감침 / 홑질	뒤돌린 무 상단 부분
		옆단	홑질, 감침질, 덧단(제물)	등술에서 만나는 무 부분 옆단
10	트임	온박음질로 연결, 트인 부분에서 감침질		트인 부분에 힘을 받히게 함
11	고름	온박음질		안깃 쪽 고름 흔적만 남음
12	등바대	접어서 홑질, 감침질		뒤돌린 무와 연결하는 부분은 접어서 홑질로 마무리, 그 외 감침질
13	동정	달려 있지 않음		



<그림 15> 중치막



<그림 16> 트임부분(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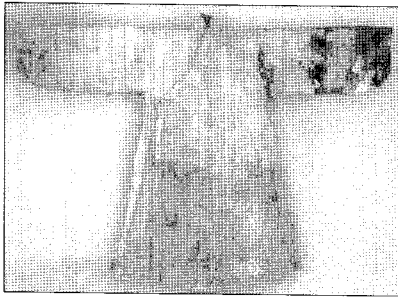
(6) 중치막(中赤莫): 겉은 명주, 안은 모시와 무명으로 만들고, 칼깃이다. 바느질이 매우 정교하고 고르며, 안감은 등길과 안길의 설을 무명으로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모시로 하였다. 동정은 깃 안쪽으로 1cm정도 넘겼는데 식서를 이용하여 시집을 접지 않았다. 두리소매이며, 모시로

안감을 대면 모시가 쉽게 명주를 마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매 안감은 겉감보다 0.5cm 정도 작게 만들었다. 옆트임은 왼쪽은 안감 겉마기 끝에서 23cm내려와서, 오른쪽은 겨드랑이에서 27cm 내려와서 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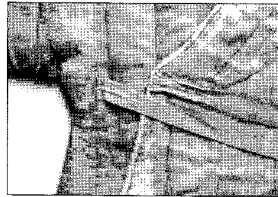
<표 6>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중치막 (피장자가 착용한 의복)					
구성 및 소재		겉, 겉은 명주, 안은 모시와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칭	바느질법		비고	
1	깃 (칼깃)	겉 / 안	반박음질 / 감침질		안깃머리부분 6cm가량 온박음질로 누름
2	설	겉감	겉 / 안	고운홈질	겉, 안감: 고운홈질
		안감	설	홈질	
3	소매	겉감	배래	고운홈질	소매안감의 둥글리는 부분은 반박음질이며, 그 외 홈질
		안감		홈질, 반박음질	
		겉 / 안	수구	홈질	
4	등술	겉 / 안	고운홈질 / 홈질		무명을 덧댄 흔적 감침질로 부착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고운홈질 / 홈질	겉, 안감: 홈질로 연결
			소매	고운홈질 / 홈질	
6	도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7	옆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		
9	무	겉 / 안	홈질		
10	트임	감침질 (트인 부분에 힘을 받히게 함)			
11	고름	겉 / 안	흔적		
12	상침	도련/옆단	2땀 상침, 0.5cm안에 2땀		4cm 들어와 6cm정도 간격
13	동정	시침질 (시침간격 2.3cm, 크기 0.1cm)		너비 9.5cm, 길이 61cm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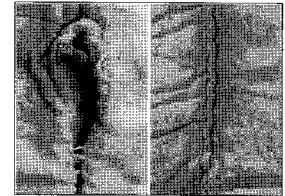




<그림 17> 중치막



<그림 18> 겉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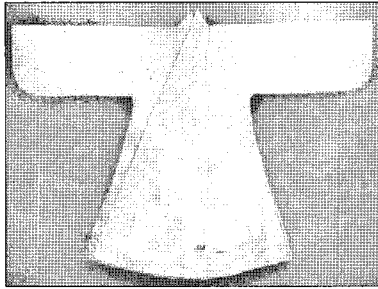
<그림 19> 매듭단추 장식과 트임

(7) 중치막(中赤莫): 솜누비로 겹은 명주, 안은 무명, 명주, 모시로 하였다. 안팎을 명주로 한 칼깃이며, 모두 이중섶으로 되었다. 누비간격은 6.5~8cm 간격으로 하였고 명주실을 홀로 하여 누웠다. 고름이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깃 끝에 너비 1.7cm, 길이 31cm안고름과 오른쪽 겉고름은 너비 2.5cm, 길이 45cm이고, 왼쪽 겉고름은 길이 55cm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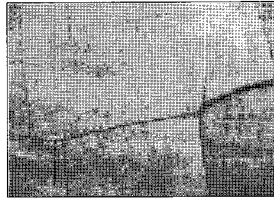
중치막의 옆트임은 54cm인데, 트임에서 1cm 내려와 매듭단추를 1개 달아 트여진 부분에 과중한 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이 트임부분은 견사와 면사를 이용하여 홉질로 트임을 막아 버렸다. 보공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홉질을 하여 트임을 막아버린 것으로 보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트임을 막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표 7>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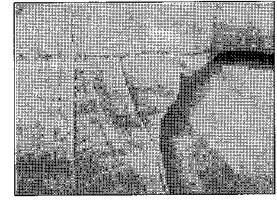
중치막 (피장자가 착용한 의복, 누비간격 6.5~8cm, 누비땀수 1cm 안에 3개)				
구성 및 소재		솜누비, 겹은 명주, 안은 모시, 무명, 명주(안감은 덧댄 흔적이 많음)		
바느질법 구성		홉질, 온박음질, 감침질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 안	홉질 / 감침질 안깃 끝 너비 9.5cm로 줄이고, 9cm가량 온박음질로 누름	
2	섶	겉 / 안	온박음질	
3	소매	겉 / 안	배래	고운홉질, 홉질
		겉 / 안	수구	0.5cm 들어와 홉질 안감은 수구에서 6cm 정도는 명주
4	등술	겉 / 안	온박음질 / 홉질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온박음질 / 홉질
			소매	고운홉질 / 홉질
6	도련	감침질		1.2cm너비의 덧단을 대고 감침질
7	옆단	홉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홉질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 왼쪽 겨드랑이 안쪽은 명주, 오른쪽은 무명으로 하나로 이어서 만들어 달음	
9	무	겉 / 안	홉질	
10	트임	매듭단추, 온박음질로 고정		굵은 홉질 (트여 있는 곳을 막음)
11	고름	겉 / 안	온박음질 / 흔적	
12	동정	시침질 (시침간격 1.5cm, 크기 0.1cm)		너비 7cm, 길이 63cm



<그림 20> 중치막



<그림 21> 안깃



<그림 22> 삼각무와 사다리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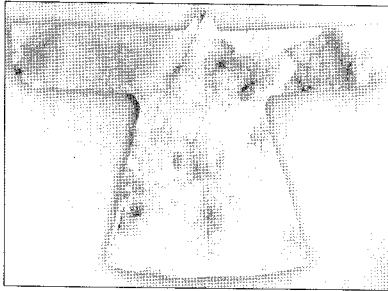
(8) 중치막(中赤莫): 안팎을 무명으로 하고 그 중간에 솜을 두었고, 칼깃이며 깃 중간에 2땀상침을 하여 솜을 고정시켰다. 깃 머리끝을 안감 쪽에서 잡아 감쳐 줌으로써 깃과 섶이 연결될 때 깃 끝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안깃은 약 3cm정도 밖으로 나와 있는 목판깃모양을 하였다. 안깃이 안길에서 나가는 부분을 안쪽으

로 살짝 밀어 고정시켜 옷감이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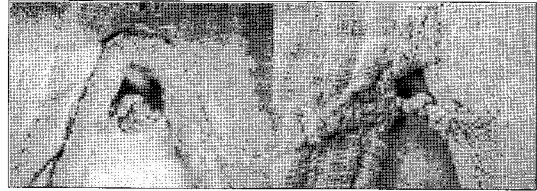
옆의 트임이 있고 트임에서 17cm내려와서 무명실 4가닥으로 꼬은 끈이 달려있다. 트임의 벌어짐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 달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표 8>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중치막					
구성 및 소재		겹, 솜을 둔 중치막, 안팎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칭	바느질법		비고	
1	깃 (칼깃)	겉 / 안	홈질, 2땀 상침		안깃 머리부분 7cm 온박음질로 누름
2	섶	겉 / 안	홈질		
3	소매	겉 / 안	배래	홈질	5~6cm가량 들어와 6cm간격, 2땀상침
		겉 / 안	수구	홈질, 2땀 상침	
4	등술	겉 / 안	홈질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홈질	
			소매	홈질	
6	도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7	옆단	홈질		겉, 안감을 마주보게 홈질	
8	삼각무	겉감	온박음질		안감에는 따로 당을 재단하지는 않고 하나로 처리
		안감	따로 당을 대지 않음		
9	무	겉 / 안	홈질		
10	트임	트임장식 없으며 트임부분에 감침질		감침질로 트임부분에 힘을 받게 함	
11	고름	겉 / 안	흔적		
12	상침	도련	2땀 상침, 0.8cm안에 2땀		4.5cm들어와 약6~7cm정도 간격
		옆단	2땀 상침, 0.8cm안에 2땀		4cm들어와 약6~7cm정도 간격
13	동정	없음			



<그림 23> 중치막



<그림 24> 옆트임 겹, 안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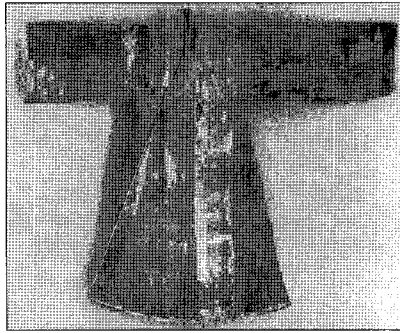
(9) 중치막(中赤莫): 안팎을 무명으로 하고 안에 솜을 얇게 두고 누빈 솜누비 중치막으로 칼깃이며, 동정은 달려있지 않았고, 고름 흔적만

남아있다.

옆트임이 있고 트임의 윗부분에는 무명실로 꼬아 만든 실로 매듭단추를 만들어 고정시켰다.

<표 9>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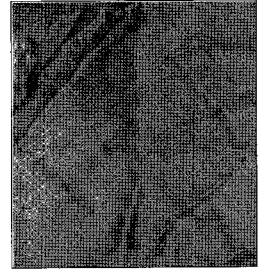
중치막 (보공품, 누비간격: 1.3cm, 누비땀수 1cm 안에 3개)					
구성 및 소재		솜누비, 안팎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겹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2	섷	겹감	겹 / 안	온박음질	
		안감	섷	홈질	
3	소매	겹감	배래	온박음질	거의 직선형이며, 수구 아랫부분에 살짝 둥글려짐
		안감		감침질, 홈질	
		겹 / 안	수구	온박음질	
4	등술	겹 / 안	온박음질 / 홈질		
5	옷감 연결부분	겹 / 안	앞, 뒷겹	온박음질, 홈질	
			소매	홈질	
6	도련	감침질, 온박음질			1cm너비의 덧단을 대고 감침질
7	옆단	0.5cm 들어와 온박음질			안섷쪽 옆단은 처리 하지 않음
8	삼각무	겹 / 안	온박음질		
9	무	겹 / 안	온박음질 / 홈질		
10	트임	매듭단추로 장식, 온박음질로 고정			매듭단추가 천이 아니라 두꺼운 명주실을 여러 겹 꼬아 만들
11	고름	겹감	흔적, 온박음질		겹고름: 겨드랑이쪽 너비 4cm
		안감	온박음질, 감침질		안고름: 겨드랑이쪽 너비 1.5cm, 길이 43cm남음
12	동정	없음			



<그림 25> 중치막



<그림 26> 걸섶 고름



<그림 27> 안감 삼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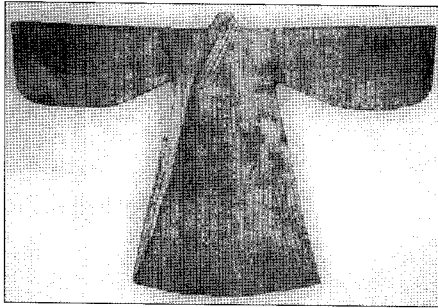
(10) 중치막(中赤莫): 숨누비이며, 겉은 명주, 안은 무명, 교직으로 만들었고, 칼깃에 동정이 일부 남아 있으며, 손상이 심한 상태 이다.

위저서 달려 있으며, 쪽물색의 굵은 면사로 고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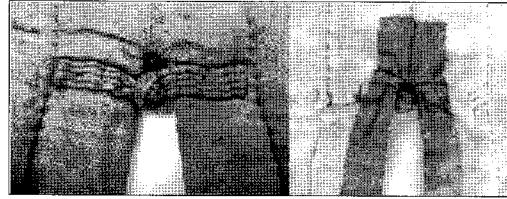
겉깃의 깃머리 부분에 명주 고름이 매듭이 지

<표 10>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중치막 (누비간격: 4.5cm, 누비땀수 1cm 안에 3개)					
구성 및 소재		숨누비, 겉은 명주, 안은 무명, 교직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안깃 머리부분 9cm 온박음질로 누름, 1cm안에 4-5개
2	섶	겉감	겉 / 안	온박음질 / 홈질	
3	소매	겉 / 안	소매 배래	온박음질/감침질	알 수 없음
		겉 / 안	수구	파손	
4	등술	겉 / 안	홈질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깃	온박음질 / 홈질	겉과 무 연결 부분 시침질 흔적
			소매	홈질	
6	도련	감침질, 온박음질		1.2~3cm너비의 덧단 대고 감침질	
7	옆단	홈질로 넘겨, 0.5cm 들어와 고운홈질		겉, 안감 마주 홈질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 / 홈질		당의 누비선을 대각선으로 놓음
9	무	겉 / 안	온박음질 / 홈질		
10	트임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11	고름	겉 / 안	흔적, 온박음질, 감침질		고름 부착 부분에 매듭져 있음 (겉)
12	동정	부분으로 남아 있음, 시침질		2.3cm 간격으로 시침	



<그림 28> 중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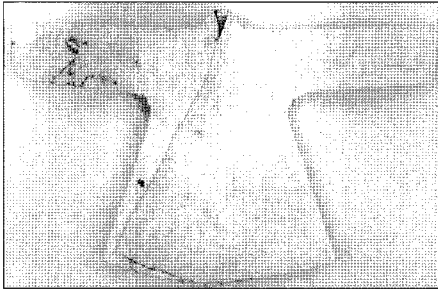
<그림 29> 매듭단추 걸, 안

(11) 중치막(中赤莫): 겉은 명주, 안은 무명으로 한 숨누비로 깔기이며, 옷의 전체적인 선이 부드럽고 바느질도 비교적 섬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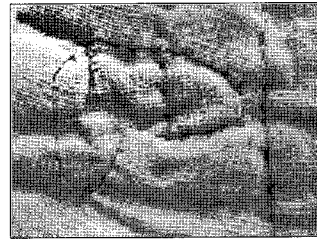
옆트임 위쪽에는 매듭단추 장식으로 고정하여, 힘을 받아도 트임의 윗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표 11>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중치막 (누비간격: 2.2cm, 누비땀수 1cm 안에 4개)					
구성 및 소재		숨누비, 겉은 명주, 안은 무명			
바느질법 구성		흠질, 온박음질, 감침질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걸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안깃머리부분 4.5cm 온박음질로 누름, 1cm안에 4~5개
2	섶	걸감	걸섶	온박음질	안섶선 옆단은 단 처리 하지 않음
			안섶	흠질	
3	소매	걸 / 안	배래	흠질 / 감침질	0.5cm들어와 고운흠질
		걸 / 안	수구	고운흠질	
4	등술	걸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5	옷감 연결부분	걸감	앞, 뒷길	온박음질, 흠질	옷감의 덧댄 부분은 감침질
			소매	흠질	
		안감	앞, 뒷길	흠질, 감침질	
			소매	흠질, 감침질	
6	도련	흠질, 감침질 (흠질로 넘감)		0.8~1.2cm 너비의 직선 덧댄	
7	옆단	흠질, 감침질 (흠질로 넘감)		0.8~1.2cm 너비의 직선 덧댄	
8	삼각무	걸 / 안	온박음질 / 감침질		
9	무	걸 / 안	흠질		
10	트임	매듭단추 장식, 온박음질로 누름			
11	고름	걸감	흔적, 안깃 쪽 잘려나감		고름 부착 부분에 매듭져 있음
		안감	흔적, 온박음질, 감침질		겨드랑이 안섶 쪽 안고름 (길이29cm, 너비1cm)
12	동정	없음			



<그림 30> 과두



<그림 31> 옷감 덧댄 흔적  
(안설편 무 부분)

(12) 과두(裹肚): 겉과 안을 무명으로 하고 그 사이에 솜을 두었으며 칼깃이고 동정과 고름은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아랫단은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아랫단을 거칠게 접어 올려 제작한 것으로 보아 길이가 긴

옷의 단을 잘라 만든 것처럼 보이며, 무명실을 홀으로 하여 겉쪽으로는 실밥이 적게 보이고 안쪽에서 크게 시친 것과 같이 누볐다. 안팎의 부실한 부분을 옷감을 덧대어 꿰맸다.

<표 12> 과두(寡頭)의 봉제구성법

과두 (누비간격: 6~7cm, 누비땀수 1cm 안에 2개)					
구성 및 소재		솜누비, 안팎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홈질		안깃 머리부분 6.2cm 온박음질로 누름, 너비 6.3cm 사선으로 접어 좁힘
		안	홈질, 감침질		
2	설편	겉 / 안	홈질		안설편 옆단은 단 처리 하지 않음
3	소매	겉 / 안	배래	홈질 / 감침질	거의 직선의 형태를 보임
		겉 / 안	수구	굵은 홈질	겉, 안을 마주하여 홈질
4	등솔	겉 / 안	알 수 없음		등솔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음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홈질 / 감침질	옷감의 덧댄 부분은 감침질
			소매	홈질 / 감침질	
6	도련	홈질		거칠게 접어 올려 제작, 일정치 않음	
7	옆단	홈질		겉, 안을 마주하여 홈질	
8	삼각무	겉감	온박음질		굵은 실로 크게
		안감	알 수 없음		
9	무	겉 / 안	홈질		
10	트임	없음			
11	고름	겉 / 안	떼어낸 흔적 / 없음		
12	동정	없음			

2) 배상경(裴尙馨) 배위(配位) 고성남씨(固城南氏)묘4)

장옷(長衣)4점, 중치막(中赤莫)1점, 저고리(赤古里)6점, 적삼(赤衫)1점, 치마(赤巾)3점, 속바지(袴)2점, 속속곳(袴)1점과 모자(帽子), 멍목(幘口), 악수(握手), 오낭(五囊)등 의복 및 염습구(殮襲具)를 포함하여 29건 45점이며, 복식유물이 수습된 것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포(袍)류는 총 5점으로 장옷 4점, 중치막 1점이다. 장옷(長衣)은 쓰개류의 용도 보다는 겉옷으로의 장의의 용도로 보이며, 목판깃에 직선배래로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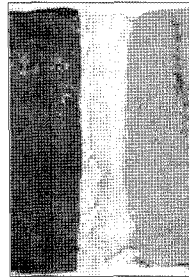
끝에 모두 한삼이 달려 있고, 겹섶은 모두 이중섶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온박음질, 홉질, 감침질, 시침질 등으로 구성되었고, 중치막(中赤莫)의 옆트임에는 사뜨기가 사용되었으며, 정교하게 바느질 된 옷과 함께 수의용으로 거칠게 바느질 된 옷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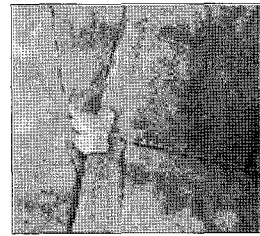
(1) 장옷(長衣): 겹감은 연화보문단(蓮花寶紋緞), 안감은 명주로 하고 사이에 명주솜을 넣은 바느질이 정교한 장옷(長衣)이다. 깃머리 부분에서 겹깃은 11.5cm (1cm안에 7~8개), 안깃은



<그림 32> 장옷



<그림 33> 거들지



<그림 34> 겹깃

<표 13> 장옷(長衣)의 봉제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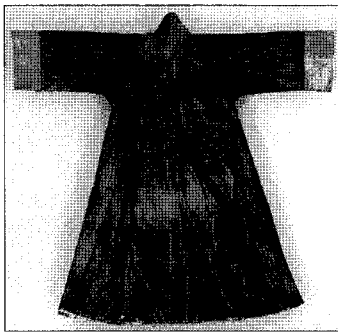
장옷					
구성 및 소재		솜장옷, 겹감 연화보문단, 안감 명주, 명주솜			
바느질법 구성		홉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목판깃)	겹 / 안	홉질, 온박음질, 감침질	안감의 깃머리부분만 감침, 나머지 홉질	
2	섶	겹 / 안	홉질	안섶의 안감에 시침흔적	
3	소매	겹감	배래	온박음질, 홉질	겹감 배래에 부분적 온박음질
		안감		굵은실로 홉질	
		겹 / 안	수구	알 수 없음	단을 접었던 흔적, 한삼은 시침 고정
4	등술	겹 / 안	온박음질, 고운홉질 / 홉질	겹: 꼬집어 박음, 안: 시침흔적	
5	옷감 연결부분	겹 / 안	앞, 뒷겹	홉질, 온박음질	겹섶 쪽 안감 온박음질, 당과 만나는 부분은 8cm정도 온박음질, 소매안감 홉질
			소매	홉질, 온박음질	
6	도련	홉질, 감침질 (계물단)		0.3~0.7cm가량 계물단	
7	옆단	홉질		겹, 안을 마주하여 홉질	
8	삼각무	겹 / 안	온박음질		
9	무	겹 / 안	홉질		
10	고름	겹 / 안	흔적, 온박음질 / 없음		
11	상침	도련	2땀 상침, 0.5~7cm안에	4~5cm들어와 9.5cm정도 간격	
		옆단	2땀 상침, 0.5cm안에	4~5cm들어와 7~9cm정도 간격	
12	동정	시침질 (시침간격 2.5cm, 크기 0.1cm)			

12cm (1cm안에 6~7개)가량 온박음질을 하여 정교함이 돋보인다. 등술의 겹감은 꼬집어서 홈질을 하였고, 깃과 등술이 만나는 부분은 견고함을 위해 1cm가량 온박음질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정이 있으며, 수구에는 한삼이 달렸다. 왼쪽 소매의 안감 중간에 5cm가량 모시를 시침질로 연결하였으며, 거들지 일부가 남아있다. 트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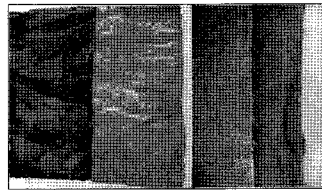
(2) 장옷(長衣): 솜장옷(長衣)으로 목판깃에 겹감은 명주로 하고 안감은 무명으로 하였다. 명

주도 매우 곱고 바느질도 매우 곱다. 깃머리 부분에서 겹감은 9.5cm (1cm안에 8개), 안깃은 10cm (1cm안에 7개)가량 온박음질을 하여 정교함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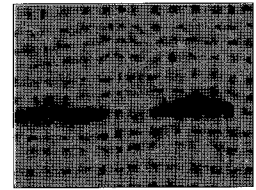
수구에서 11cm정도 한삼을 대고, 겹감이 안쪽으로 1.5cm가량 들어왔으며, 트임은 없다. 안길의 옆 쪽이 조금 짧게 잘려 있는데 옷을 펴놓았을 때 그 차이가 8cm정도 난다. 옷을 입었을 때 안쪽으로 여미어지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안고름이 없어도 옷자락이 처지지 않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장옷



<그림 36> 소매한삼부분 (겹,안)



<그림 37> 상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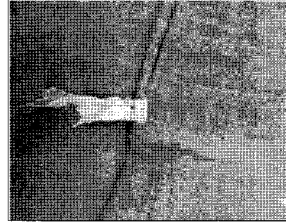
<표 14> 장옷(長衣)의 봉제구성법

장옷					
구성 및 소재		솜장옷, 겹감 명주, 안감 무명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칭	바느질법		비고	
1	깃(목판깃)	겹 / 안	홈질, 온박음질 / 감침질		안감의 깃머리부분만 감침, 나머지 홈질
2	옆	겹 / 안	홈질 / 홈질, 온박음질		겹길과 안길안감은 섰너비는 명주
3	소매	겹 / 안	배래	홈질	
		겹 / 안	수구	홈질	
4	등술	겹 / 안	고운홈질, 온박음질		
5	옷감 연결부분	겹 / 안	앞, 뒷길	홈질 / 홈질, 감침	안감에 덧댄 흔적이 많으며, 원래 안감끼리 연결시 온박음질도 사용
			소매	홈질 / 홈질, 감침	
6	도련	홈질		겹, 안을 마주하여 홈질	
7	옆단	홈질		겹, 안을 마주하여 홈질	
8	삼각무	겹 / 안	온박음질		안감 삼각무 부분만 명주
9	무	겹 / 안	홈질		
10	고름	겹 / 안	흔적, 온박음질 / 없음		겹고름 너비 1.2cm정도
11	상침	도련	2뿔상침, 0.5~7cm안에		4cm들어와 5.5~7cm정도 간격
		옆단	2뿔상침, 0.5~7cm안에		4~4.5cm들어와 7.5cm정도 간격
12	동정	굵은 무명실 흔적		깃에서 7cm들어와 달렸던 것으로 추정	





<그림 38> 장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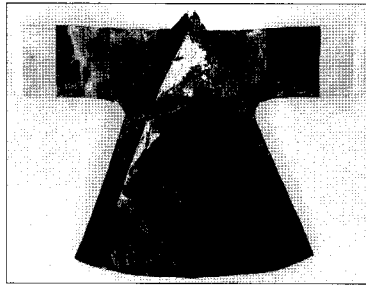
<그림 39> 겹고름 흔적

(3) 장옷(長衣): 겹감은 명주와 문단, 안감은 무명, 명주, 교직등으로 만들고 안에 명주솜을 든 목판깃의 장옷(長衣)이다. 깃에서 7cm 정도 떨어져 굵은 무명실로 바느질한 흔적이 있어, 동정을 달았던 흔적으로 보인다. 깃머리 부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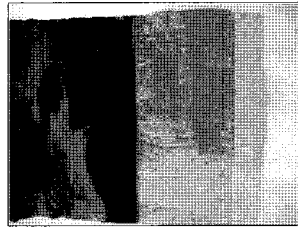
서는 겹깃은 9.5cm (1cm안에 8개), 안깃은 8cm (1cm안에 5~6개)가량 온박음질을 하여 정교함이 돋보인다. 단과 섹션 부분에 2땀 상침을 홈질로 하였다.

<표 15> 장옷(長衣)의 봉제구성법

장옷					
구성 및 소재	솜장옷, 겹감 명주, 안감 무명, 명주, 교직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목판깃)	겹 / 안	홈질, 온박음질 / 감침질		
2	섹	겹 / 안	홈질 겹섹 안감 부분은 명주를 사용		
3	소매	겹 / 안	배래	홈질	
		겹 / 안	수구	알 수 없음	파손 됨
4	등술	겹 / 안	고운홈질 / 홈질 깃과 등술이 만나는 0.5cm부분 온박음질		
5	옷감 연결부분	겹 / 안	앞, 뒷깃	홈질/홈질, 감침	진동의 어깨부분 3cm가량 온박음질 안감에 덧댄 흔적이 많으며, 원래 안감끼리 연결시 온박음질도 사용
			소매	홈질/홈질, 감침	
6	도련	홈질, 감침질			겹, 안을 마주하여 홈질
7	옆단	홈질			겹, 안을 마주하여 홈질
8	삼각무	겹 / 안	온박음질		겹감은 문단, 안감은 무명
9	무	겹 / 안	홈질		
10	고름	겹 / 안	흔적, 온박음질 / 없음		겹고름 너비 1.5cm, 길이 8cm
11	상침	도련	3땀 상침, 1.~1.5cm안에		3.5cm들어와 5.~5.3cm정도 간격
		옆단	3땀 상침, 1.~1.1cm안에		4cm들어와 5.5~7cm정도 간격
12	동정	굵은 무명실 흔적			



<그림 40> 장옷



<그림 41>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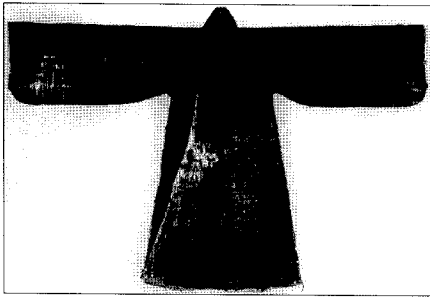
(4) 장옷(長衣): 안팎을 무명으로 만든 솜장옷(長衣)으로 겉은 쪽물색이며 소매 끝의 19cm은 제색 무명으로 하였다. 깃은 목판깃이며, 깃머리는 겉섶과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약 0.5cm 정도 꺾어 넣어 섶과 연결되는 부분이 완성된 후에도 도드라지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깃머리 부분에서는 겉깃은 9cm(1cm안에 6개)가량 온박

음질을 하고, 안깃은 9.3cm 시침질을 하여 고정만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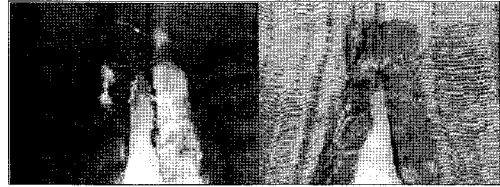
수구부분에서 안쪽의 무명을 시쳐 고정하고, 겉으로 19cm정도 되는 부분에서 겉소매와 고정하였으며, 트임은 없고, 안감은 매우 많은 조각으로 덧대었다. 옷감을 덧댄 것은 흠질이나 시침질로 고정하였다.

<표 16> 장옷(長衣)의 봉제구성법

장옷 (보공품)					
구성 및 소재		솜장옷, 안팎 무명			
바느질법 구성		흠질, 온박음질, 감침질, 상침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목판깃)	겉 / 안	흠질, 온박음질 / 감침질		2담상침으로 솜이 밀리지 않게 고정
2	섶	겉 / 안	흠질		
3	소매	겉 / 안	배래	흠질	직선에 가까움
		겉 / 안	수구	알 수 없음	안감이 겉으로 나와 고정
4	등술	겉 / 안	흠질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흠질/ 흠질, 감침	
			소매	흠질/ 흠질, 감침	
6	도련	흠질		겉, 안을 마주하여 흠질	
7	옆단	흠질		겉, 안을 마주하여 흠질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		
9	무	겉 / 안	흠질		
10	고름	겉 / 안	흔적, 온박음질 / 없음		겉고름 너비 1.5cm, 길이 8cm
11	상침	도련	2담상침, 0.5~1cm안에		4~4.5cm들어와 6.~6.5cm정도 간격
		옆단	2담 상침, 0.8cm안에		4cm들어와 6.5~8cm정도 간격
12	동정	없음			



<그림 42> 중치막



<그림 43> 트임 사뜨기 (겉, 안감)

(5) 중치막(中赤莫): 솜누비 명주 중치막(中赤莫)으로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을 띠고 있다. 겉감은 주로 하고 안감은 명주, 무명, 교직 등으로 만들었다. 칼깃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다. 한삼은 왼쪽은 안감 수구선에서 바로 달리고, 오른쪽은 안감에서 15cm가량 들어와 달려있다. 옆트

임의 맨 윗부분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총 1.6cm 정도 사뜨기를 했다.

전체적으로 바느질과 만들새는 정갈하지만 겉길쪽과 소매 등이 매우 낡았다.

<표 17> 중치막(中赤莫)의 봉제구성법

중치막 (보공품, 누비간격 1.3~1.5~1.8cm, 1cm안에 5땀)					
구성 및 소재		솜장옷, 겉감 주, 안감 명주, 무명, 교직			
바느질법 구성		홈질, 온박음질, 감침질, 사뜨기			
	명 칭	바느질 법		비 고	
1	깃 (칼깃)	겉 / 안	온박음질 / 감침, 부분홈질		깃 둘레 0.7cm가량 들어와 고운홈질
2	셔	겉 / 안	고운홈질 / 홈질, 시침흔적		겉셔 안감부분 명주
3	소매	겉 / 안	배래	온박음질 / 감침	직선에 가까움
		겉 / 안	수구	홈질	양 쪽 한삼 달린 위치가 틀림
4	등술	겉 / 안	온박음질, 시침흔적 / 알 수 없음		안감 등술은 명주가 2~2.3cm 폭으로덧대어져 있음
5	옷감 연결부분	겉 / 안	앞, 뒷길	홈질/홈질, 감침	겉은 비교적 손상이 심하고 앞길쪽에 시침흔적이 있음, 안감에는 덧댄 곳이 많음 (홈질과 감침질 사용)
			소매	홈질/홈질, 감침	
6	도련	홈질, 감침질		1.5cm가량 명주 덧댄	
7	옆단	홈질, 감침질		0.9~1.5cm가량 명주 덧댄(옆트임)	
8	삼각무	겉 / 안	온박음질/온박음질, 고운홈질		안감은 교직을 사용
9	무	겉 / 안	홈질		
10	트임	1.6cm 가량 사뜨기		옆트임의 맨 윗부분은 뒤쪽에서 앞쪽	
11	고름	겉 / 안	흔적, 온박음질 / 없음		
12	동정	굵은 무명실 흔적		깃에서 7cm 떨어진 부분	

## IV. 결과 및 요약

성산 배씨 문중의 포(袍)를 중심으로 한 봉제 구성 방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홉질은 성산 배씨 출토복식에서 모든 의복 구성 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바느질법이다. 겹옷의 대부분은 홉질로 전체를 구성 하였으며, 누비, 고운 직물은 주로 고운 홉질이, 무명이나 안감, 거칠게 제작된 의복이나 수의용으로 제작된 의복에는 홉질이, 굵은 실로 큰 홉질을 하여 의복을 빠르게 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2) 감침질은 옷감을 덧대거나, 등바대, 밑단이나 옆단, 안에 깃을 앉힐 때 많이 쓰였으며, 홉질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인 바느질 법이다.

대부분이 견실하고, 신축성이 있게 한 여섯감침이며, 도포에서 뒤돌린 무의 머리부분에는 말아감침을 사용하였다. 옷감을 덧낼 시에 쓰인 감침은 옷감이 고정 될 정도로만 감쳤으며, 그 외에는 땀이 일정하고, 섬세하게 감침질을 하였다.

3) 온박음질은 바느질 구성법 중 가장 견실한 방법으로 마치 재봉틀을 사용한 것과 같다. 의복 구성방법에서 홉옷의 깃 부분, 겨드랑이 바대, 당(삼각무), 깃 머리를 누를 시는 거의 온박음질이 사용되었고, 가장 정교한 온박음질은 1cm 안에 8개의 땀을 놓은 것도 있다. 연결된 옷감끼리 만나는 부분, 소매배래, 등술, 진동, 섰선수구에서 배래로 등글리는 부분등은 홉질과 온박음질이 섞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의복의 견실함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온박음질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 시침질은 옷감을 잠시 고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인 시침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동정이나 거들지등 쉽게 분리하여 세탁하여야 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었다. 대부분 위아래가 같은 땀의 크기로 보이며, 동정이나, 거들지는 걸감의 땀이 0.1~0.2cm정도 크기에 2~2.5cm 간격으로 구성하여 걸감에 바늘땀이 잘 보이지 않게 하였다.

5) 옛쌈술은 홉옷에만 쓰이는데 특성상 옷감 연결부분이 신체나 다른 의복에 닿아 헤어지거나, 뜯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술기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으로 배천조 복식의 홉옷에서 보여 지

며,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옛 바느질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6) 상침은 솜옷이나 겹옷의 옷감의 안팎이 밀리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통 단에서 4cm가량 들어와 약 7cm 간격으로 2~3땀 상침을 하였다. 깃과 수구부분에도 사용이 되었으며, 도포의 겨드랑이 바대에는 4땀 상침도 보이는데, 온박음질을 4번 한 후 그 너비 만큼 띄운 것으로 매우 섬세하며, 걸감이 2땀일 때 안감도 2땀으로 구성된 것과 걸감에는 2땀이나 안감에는 3땀으로 되어 있는 의복도 있었다. 이와 같이 상침은 실용적인 견고성과 장식적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7) 누비는 중치막과 과두(裹肚)에 사용되었는데, 누비의 간격이 좁으면 누비 땀 간격과 크기가 섬세하고, 솜의 두께도 얇으며, 누비의 간격이 클 수록 솜의 두께도 두껍고, 누비의 땀 간격과 크기도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누비를 한 후 의복을 제작을 하였으며, 옷감 연결 시 연결 부분에는 누비의 완성선에서 0.1cm나와 솜을 제거 한 후 옷감만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두드러지지 않게 하였다. 소매배래 안감 뒤쪽부분과 깃 연결부분은 끝까지 누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누비옷의 구성상 시접처리를 위하여 1.5~2cm는 걸감만 누비어 구성을 하였다. 최대한 누비를 가리지 않고 누비와 누비사이에 옷감을 덧대고 홉질과 감침을 하였다.

8) 마지막으로 트임 보호 장식은 상침, 삼각무, 트임 바대등과 함께 모두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겸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매듭연결고리를 이용하거나 옷감의 트임부분에 직접, 감침과 사뜨기로 구성을 하였고, 트임이 시작되는 부분의 둘레에는 온박음질을 하여 단을 단단히 하였다.

도포는 연결고리, 중치막은 매듭연결장식, 중치막은 굵은 실을 꼬아 매듭연결을 만들었다.

매듭연결 장식을 하지 않고 트인 부분 자체를 견실하게 처리한 의복은 도포, 중치막은 감침으로 튼튼히 하였고, 머느리 고성 남씨의 복식 중치막의 트임 부분은 1.6cm 정도 사뜨기를 하여 견실히 하였다.

이상과 같이 16~17세기 성산 배씨 출토복식은 전문침선가가 아닌 한 집안에서 지은 의복은

로 보여 시아버지인 배천조 복식에도 머느리인 남씨의 손길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바느질법이 돋보이며, 텃댄 흔적과 최대한 옷감을 살려 지은 것으로 보아 소박한 형태의 미, 검소한 의복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의복형태로 같은 사람의 의복에서도 다양한 형태변화와 봉제구성 방법이 동시대 출토복식의 봉제구성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밑단과 옆단의 처리, 옷감 연결, 트임 보호 처리, 시접 방향 등은 자유로운 것으로 보아 이는 의복을 짓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에 차이점으로 보이며, 각 의복에 굳이 일정한 방법에 따른 것보다는 봉제구성 시 의복을 짓는 이와 착용자의 편안함을 고려한 듯하다. 동시대의 출토복식 봉제구성법과 다르지 않아 조선중기 봉제구성법을 상세히 확인 및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성산배씨종중. 星山裴氏世界譜 참조.
- 2) 이상은 (2007). *충북 영동 성산 배씨 기증 -16, 17세기 출토복식*. 건국대학교 박물관, pp.181-192.
- 3) 옛쌈술: 조선시대 홑옷의 술기를 이을 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바느질법 중 하나로 시접의 분량에 차이를 두어 두 시접을 온박음질 후, 넓은 시접이 좁은 시접 감아 다시 옷감에 감침질을 하는 방법으로 겉에서는 완성선에서 0.1cm 옆으로 고른 바늘땀이 보이며, 안쪽에서는 중심이 약간 불룩한 형태
- 4) 이상은 (2007). Op. cit., pp.207-211.
- 5) 이상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 박물관.
- 6) 이상은 (1992). *조선왕조복식사론*. 서울: 동방 도서.
- 7) 김영재 (2004). *이응해 출토복식의 바느질법과 특성*. 충주박물관, pp.157-166.
- 8) 권은영 (2008). 배천조 출토복식 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5-67.
- 9) 박광훈 (2005). *침선장 박광훈의 오방색 아이 옷*. 서울: 다섯수레, pp.14-17.
- 10) 박경자 (1996). *한국의상구성*. 서울: 수학사.
- 11) 홍나영 외 3인 (2004). *한복만들기*. 서울: 교문사.
- 12) 김정호, 이미석 (2002). *우리 옷 만들기*. 한남대학교출판부.
- 13) 광주민속박물관 (2000). *조선 중기의 우리 옷*. 광주민속박물관.
- 14)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1981~2002).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1~20*.
- 15) 조경묘출토복식유역 (2001). *조경묘출토복식유역*. 서울역사박물관, pp.46-67.
- 16) 장인우 (2006). 전주이씨묘 출토의복의 형태와 봉제. *한복문화학회 9(3)*, pp.117-118.
- 17) 장인우 (2001).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봉제구성. *한국복식학회 51(1)*, pp.33-48.
- 18) 안명숙 (2002). 김덕령장군 묘 출토복식의 실태와 바느질법 연구.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11*, pp.61-73.
- 19) 안명숙 (2007). 17세기 여자 출토 장의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7(8)*, pp.46-52.
- 20) 이은주 (2003). 17세기 동래 정씨 흥곡공파 일가 묘의 출토복식. *한국복식학회 53(4)*, pp.71-85.
- 21) 구남옥 (2008).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1 -트임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8(8)*, pp.124-134.